

## 24차시-학부모의 신뢰 지수 높이는 스피치

1.공명(共鳴) 울림을 가진 스피치를 해라.

1) 자신의 일에 대한 울림을 만들어라.

공명은 '함께 울린다.'의 뜻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고 싶으면 먼저 내 마음부터 울려야 한다. 그래야 함께 울리는 공명을 만들 수 있다.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나 자신의 마음부터 울려야 한다. 먼저 내 마음속에 일에 대한 울림을 만들어보자.

직업은 영어로 calling을 의미한다. '부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내가 이세상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은 어떠한 부르름에 의해 선택되어진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교사들 가운데 "과연 내가 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만큼 교사라는 직업은 한 인간이 성장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교사는 교사라는 일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어야 한다. 이 애착을 갖고 학부모를 대하면 훨씬 더 신뢰감 있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사라는 직업을 사랑하게 만드는 법>

1) 초심으로 돌아가자.

2) 항상 교사로서의 직분을 잊지 말자.

3) 가르치지 말고 배우자.

4)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찾자.

1. 공명(共鳴)을 가져라.

2) 자기 자신에 대한 울림을 만들어라.

사람에게 필요한 애(愛)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100 점 만점 중 몇 점을 주겠는가?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몇 점? 일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에 대해서는 90 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10 점 정도의 형편 없는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경

우 일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의 사랑의 갭이 너무나 커 후에는 일을 하는 것에 쉽게 지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교사로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워킹맘 교사는 혼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스피치>

- 1) 힘들어, 피곤해, 짜증나..라는 3대 부정어는 피하자.
- 2)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 3대 긍정어는 매일 반복해서 하자
- 3)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말을 해주자.
- 4) 지금의 고된 마음을 소리 내 읽어주자.
- 5) 누구와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

#### 2. 디테일하게 스피치를 쪼개라.

한 반 정원 모든 아이들의 특성을 기억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핵심 컨셉 이외에 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는 서브 컨셉을 찾으려면 디테일하게 아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학생과의 상담을 하면서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상담하면서 듣지 못했던 아이의 말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록으로 남기세요. 학부모와의 상담을 할 때 이 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또한 설득의 기본 법칙 학습을 통해 학부모를 설득해보자.

##### 1) 기록으로 남겨라.

- 학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모습을 기록해서 말하라.
- 숫자에 공을 들여라.
- 학부모와의 상담 내용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것을 스피치에 활용하라.
- 청중 분석하라.
- 

##### 2) 설득의 법칙을 활용하라.

- 제한 효과 이론
- 접종이론
- 침묵의 나선이론
- 인지부조화 이론
- 의제설정이론
- 유사성의 원리
- 일관성의 원리

3. 학부모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학생'이다. 학생과 교사의 유대관계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물론 학부모와의 관계를 아예 옆으로 차치해 둘 수는 없지만 자칫 학부모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아이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사실 학생에게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을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학부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의 중심은 나 자신 바로 교사입니다. 학생이 집에서 어떤 모습을 하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든 내가 보는 학생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단체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도 많으니까요.

1) 학부모의 상담에서 정확히 부모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으며 말한다.

2) 학생의 장점은 감성적으로 단점은 이성적으로 말한다.

3) 학부모와 교사의 목표는 하나 '아이를 잘 성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주지 시키며 말한다.